

# 국제 인권 동향

## Human Rights Worldwide

### 1. 국가인권위원회 소식

#### 인권위원장, 미얀마 사태에 대해 국제사회의 대응을 촉구하는 서한 송부

국가인권위원회 최영애 위원장은 아태지역국가인권기구포럼(Asia Pacific Forum of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APF) 부의장이자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lobal Alliance of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GANHRI) 집행이사회 위원으로서 국제사회의 거듭된 요구에도 다수의 희생자가 발생하고 있는 미얀마 상황에 대하여 국제사회의 적극적 대응을 촉구하는 서한을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과 아태지역국가인권기구포럼(APF) 의장에게 송부하였다.

현재 미얀마에서는 평화 시위자들에 대한 탄압이 자행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유엔인권최고대표는 미얀마 군부 정권의 악의적 탄압을 중단하고 강제실종에 준하는 자의적 구금으로 수감된 정치인, 인권활동가, 공무원, 언론인 등을 즉각 석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유엔 미얀마 특별보고관은 미얀마 군부의 탄압을 인류에 반하는 범죄(crimes against humanity)에 준한다고 비판하였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 의장과 아태지역국가인권기구포럼(APF) 의장에게 서한을 송부하면서 다수의 희생자가 발생하고 있는 미얀마 국내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국가인권기구연합 차원에서의 대응을 요청하였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과거 5.18 민주화 운동의 역사적 경험을 공유하면서 현재 미얀마 민주화 운동에 대하여 국제사회의 연대와 지지를 표명하여 줄 것과 미얀마의 민주주의 회복과 시민들에 대한 인권 탄압 중단을 위해서 목소리를 높일 것을 요청하였다.

#### 인권위, 제11차 유엔고령화실무그룹 회의에서 국가인권기구 대표 모두 발언

지난 3월 29일부터 4월 2일까지 5일간 유엔뉴욕본부에서 제11차 유엔고령화실무그룹 회의가 개최되었다. 정부대표, 국가인권기구, 시민단체 등이 참여한 이번 회의는 뉴욕 주재 대표부당 1명만 현장 참석하고 그 외에는 비대면으로 참석하였다.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는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 고령화실무그룹의 의장으로서 이번 회의에서 국가인권기구의 회의참가 및 발언순서 등을 총괄하였다.

3월 30일 노인인권 및 존엄성 증진을 위한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되었는데, 최영애 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노인 등 취약계층이 더 큰 타격을 입는 상황에서 노인인권협약 작성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 날 회의는 고립, 단절, 의료서비스, 디지털 기기 사용의 어려움 등이 주요 주제로 다루어졌다. 코로나19로 인해 노인의 고립과 사회적 단절, 의료서비스 이용 제한이 더욱 심화되고 디지털기기 사용이 익숙지 않은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디지털 교육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제기되었다.

3월 31일에는 코로나19와 노인을 주제로 고위급 패널 토의가 개최되었다. 이 자리에서 국제인권협약의 중요성을 논의했다. 코로나19로 인해 노인의 건강, 의료서비스, 사회적 고립, 경제적 어려움, 불평등, 연령차별 등의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음이 지적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존의 국제인권협약은 노인에게 충분한 보호를 제공하고 있지 못하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4월 1일은 일할 권리, 노동시장에 대한 접근, 사법접근권을 주제로 논의가 이루어졌다. 노인이 가용노동력으로 인식되지 못하여 재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과 사법절차의 디지털화로 인해 노인들이 겪는 어려움이 중점적으로 논의되었다.

4월 2일 회의의 마지막 날 노인인권협약 초안 작성 전문가 그룹 설치에 대한 의견이 제시되었으나, 정식안건으로 채택되지는 않았다. 차기 고령화실무그룹회의 주제로 경제적 안정, 지속가능한 개발에 대한 노인의 기여가 선정되었다.

출처: 인권위원장, 국가인권기구연합에 미얀마 민주주의 회복과 시민들에 대한 인권 탄압 중단 대응 요청, 제11차 유엔고령화실무그룹 개최 결과보고문서

## 2.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소식

### 유엔인권전문가,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에 깊은 우려 표명

유엔인권독립전문가들은 4월 15일 일본 당국에 서한을 보내 최근 후쿠시마 원전의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하겠다는 일본의 결정에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독립전문가들은 “수백만 톤의 오염수를 해양에 흘려보내는 것은 일본 및 주변지역 거주민들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어업인, 환경단체, 주변국, 시민사회가 우려를 지속적으로 표명하고 이들과 논의를 했음에도 이러한 결정을 내린 것이 심히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무엇보다도 전문가들이 오염수 처리와 관련한 대안이 존재한다고 했음에도 방류결정을 내린 것이 실망스럽다는 입장이다.

유엔 전문가들은 오염수에 스트론튬-90, 삼중수소 등 다량의 방사성 동위원소가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있고 이를 방류하는 것은 주민들의 건강과 환경에 큰 위협이 된다고 본다.

탱크에 저장된 처리수는 오염되지 않았다는 일본정부의 입장에 대해 전문가들은 ALPS라고 알려진 수처리기술은 후쿠시마 원전 탱크에 저장된 대부분의 오염수에서 방사능 농도를 완전히 제거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수처리 기술을 처음 적용했을 때 방사능을 기준치 이하로 낮추지 못했고 다시 수처리 과정을 거친다 하더라도 그 작업이 성공적일 것이라고 담보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일본정부가 오염수의 삼중수소 농도가 매우 낮기 때문에 건강을 위협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관련하여 물속에 포함된 삼중수소는 다른 분자와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식물, 어류, 인간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삼중수소의 방사능 피해를 과소평가했으며 100년이 넘는 기간동안 인간과 환경에 피해를 입힐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유엔전문가들은 일본이 국제조약에 따라 유해물질에 대한 노출을 예방하고 오염수 방류로 인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며, 다른 국가에 미치는 환경적 피해를 방지할 의무가 있음을 강조했다.

[https://www.ohchr.org/SP/NewsEvents/Pages/DisplayNews.aspx?NewsID=27000&LangID=E#:~:text=GENEVA%20\(15%20April%202021\)%20%2D,livelihoods%20in%20the%20Pacific%20region.](https://www.ohchr.org/SP/NewsEvents/Pages/DisplayNews.aspx?NewsID=27000&LangID=E#:~:text=GENEVA%20(15%20April%202021)%20%2D,livelihoods%20in%20the%20Pacific%20region.)

## 3. 인권 NGO 소식

### 국제앰네스티 2020-2021 세계인권상황 보고서: 수십년간 이어진 불평등, 방임, 학대로 인해 코로나19 피해가 극대화되었다

국제앰네스티는 최근 발간한 연간 인권상황보고서에서 코로나19가 불평등, 차별, 억압을 지속시켰던 분열적이고 파괴적인 정책의 참혹한 결과를 드러냈고 감염병으로 인한 피해를 극대화시켰다고 지적했다.

국제앰네스티 2020-2021년 세계인권상황 보고서는 2020년 149개국의 인권동향을 분석하여 제시한다. 이번 보고서는 코로나 19는 수십 년간 지속된 세계지도자들의 차별적인 정책결과와 더불어 여성, 난민과 같은 소외계층에 더욱 큰 타격을 입었다고 지적한다.

일례로 봉쇄정책으로 이동의 자유가 제한되면서 많은 여성과 성소수자들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이 제한되고 젠더 기반폭력이나 가정폭력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 또한 의료업계 종사자들과 같은 최전선 필수분야 근로자들은 이들을 소외시키는 의료보건제도와 불충분한 사회보장정책으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다.

보고서는 또한 세계지도자들이 감염병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인권을 완전히 무시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 코로나19에 대한 거짓정보뿐만 아니라 정부에 대한 모든 비판을 처벌하는 조치를 도입하는 경우도 있었다.

자국이기주의로 인해 국제적 협력에 기반한 코로나19 대응이 어렵게 되기도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은 백신공급량의 대부분을 구매하여 다른 국가들의 백신확보를 어렵게 하였고 많은 부국의 정부들이 코로나19 백신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제약회사가 정보와 기술을 공유하도록 촉구하는 노력을 충분히 하지 않았다.

보고서는 현재의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자국이기주의가 아닌 국제적 협력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각 국 정부는 백신이 모든 이들에게 신속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G20 회원국과 국제금융기관은 77개 최빈국에 부채탕감을 해줌으로써 이들이 감염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말한다.

또한 국제앰네스티는 정부의 실패에 분노한 시민들이 시위를 주도하고 젠더기반폭력과 같은 분야에서 중요한 성과를 거둔 것을 언급하면서 평범한 사람들과 인권옹호자들이 더욱 안전하고 평등한 세계를 주도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https://www.amnesty.org/en/latest/news/2021/04/annual-report-covid19-decades-of-oppression-inequality-abuse/>

#### 4. 세계보건기구(WHO) 소식

##### 세계보건기구: 코로나19 이후 더욱 공정하고 건강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노력 촉구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는 4월7일 세계 보건의 날을 맞아 전세계의 보건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다섯 가지의 조치를 도입할 것을 촉구했다.

1. **국가내, 국가간 코로나19 기술의 동등한 접근 보장:** 효과적이고 안전한 백신이 매우 빠른 속도로 개발, 승인되고 있다. 이제 백신을 필요로 하는 모든 이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ACT-A[Access to COVID-19 Tools Accelerator](코로나19 대응수단에 대한 접근성 가속화 체제)의 백신보급체계인 COVAX에 대한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100개 국가에 신속하게 백신을 공급할 수 있을 것이다. 백신뿐만 아니라 개인보호장비, 진단키트, 의약품 같은 물자도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일차보건의료에 대한 투자:** 여전히 세계 인구의 절반은 필수보건의료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 각 국 정부는 GDP의 1퍼센트를 추가로 일차보건의료에 투자하겠다는 세계보건기구의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 또한 2030년까지 전 국민의료보험을 제공하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부족한 1천8백만 명의 보건의료인력을 확충해야 한다.
3. **보건 및 사회보장을 우선시:** 빈곤, 교육의 중단, 영양문제 등 코로나19로 인한 사회경제적 영향이 공중보건에 미치는 영향보다 더 크다. 정부는 효율적인 투자로 지원을 가장 필요로 하는 이들에 혜택을 제공하는 사회보장제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4. **안전하고 건강하면서 포용적인 지역 형성:** 적절한 교육, 여가시설을 갖춘 안전한 지역에서 주거시설을 공급하는 것이 모든 이의 건강상태를 개선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보건 및 기타 기본사회서비스(물공급/위생서비스 포함)가 농촌지역에도 공급될 수 있도록 하고 농촌 거주민들이 지속가능한 생계수단을 확보하고 디지털기술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5. **데이터 및 보건정보 시스템 강화:** 양질의 데이터를 성별, 소득수준, 교육, 인종, 성별 등으로 세분화하여 적시에 공급하고 어느 분야에 불평등이 존재하는지를 파악하여 이에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보건분야의 불평등을 모니터링하는 것은 국가보건정보시스템 전반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https://www.who.int/news/item/06-04-2021-who-urges-countries-to-build-a-fairer-healthier-world-post-covid-19>

#### 5. 유엔 주요회의 일정

일 시	회의명
2021/3/29-4/1	유엔고령화실무그룹 제11차 회의
2021/5/3-5/14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 (Universal Periodic Review, UPR) 실무그룹 제38차 회의
2021/5/17-5/21	발전권 실무그룹 제21차 회의
2021/6/21-7/9	유엔인권이사회 제47차 회의
2021/9/13-10/1	유엔인권이사회 제48차 회의
2021/11/1-11/12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 (Universal Periodic Review, UPR) 실무그룹 제39차 회의

#### 국제 인권 동향

국제 인권 동향은 위원회 직원들의 국제 인권 의식 고양과 역량 강화를 위해 월 1회 발행됩니다. 각 과에서도 관련 소식이 있으면 언제든지 알려주십시오. 제안 및 의견은 아래로 부탁드립니다.

정책교육국 국제인권과  
담당자 김효정 hjkim5@nhrc.go.kr